

생산자, 유통인이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 강종성 회장

- 1980 유림상회 설립
- 1992 당진농장 상호변경
- 1995 대한계란유통연합회 총무
- 1998 한국계란유통연합회 친목위원장
- 2001 (사)한국계란유통협회 유통위원장
- 2009 (사)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지난 2월 28일 한국계란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협회장에 강종성 계란유통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계란유통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강종성 회장은 강인하고 성실한 회원들의 역군이 되어 협회지부 활성화, 회원들의 화합, 투명한 협회운영, 행동하는 회장 등 4대 목표를 세워 협회 및 양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본고는 앞으로 한국계란유통협회를 이끌어갈 강종성 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30년 다져온 계란유통 전문가

강종성 회장은 계란유통업계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란유통업에 종사한 숙부의 영향을 받아 군 제대 후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만들자'는 꿈으로 유통업계에 뛰어들었다. 1980년 유림상회라는 이름으로 일일 200판의 계란을 취급하던 것이 30년이 지난 현재 30여만개의 계란을 유통하면서 '신

선하고 깨끗한 당진농장'의 이름으로 중간도매, 식자재, 중소·대기업, 할인마트, 직판장 등으로 국내 유통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사)한국계란유통협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인 유통위원장을 7년 동안 맡아오면서 유통상인들을 규합하고 생산자들과 타협하면서 난가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 업계의 불협화음을 없애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에는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함을 바탕으로 유통업계에 신망을 받아왔다.

회원 단합 및 지부활성화 주력

강종성 회장은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발전과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유통 선진화와 계란유통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취임 소감을 통해 밝혔다.

강 회장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수를 늘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부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협회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계란소비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부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지부장에게 지금보다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킬 계획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내에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언론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어 대정부 활동과 협회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계란 제값받기 운동 전개

강종성 회장은 “계란제값 받기”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주기적으로 계란을 할인 품목으로 끼워주기 상품 등 행사용 품목으로 쓴 가격에 납품을 자주 요구하는데 이는 유통인 뿐 아니라 생산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인은 물론 생산자들과 연계하여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언급하고 고질적인 유통마트의 횡포를 잠재우는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생산자와 공생관계 유지

강종성 회장은 계란유통시스템화, 브랜드사업 등 유통협회 및 업계의 당면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는데 주력하고 특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유도하여 유통체질을 개선하고 계란유통의 난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다. 즉,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과 회원등록제를 임기내에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감한 시세 문제는 전국의 유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통상인들과 생산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한양계 협회와의 관계를 과거보다 더욱 친밀하게 유지하여 유통인들은 물론 생산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